광주·전남 청년실업률 20년만의 최악

2분기 광주 12.9%, 전남 14.1%…광주 여성실업 21% ↑

‘6월 고용동향’…지역 고용률 올들어 점차 개선

광주·전남지역 청년실업률이 20년만의 최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전남지역 실업자 수는 2000년 이후 가장 많았고, 광주 여성 실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7% 급증했다.

1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모두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했다.

광주지역 취업자는 75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6%로, 전년동월 대비 0.4%포인트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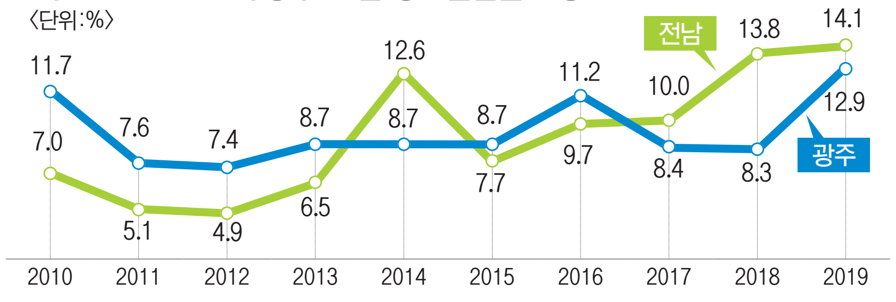
실업자는 2만7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00명 늘었다. 실업자가 늘면서 실업률은 전년 동월보다 0.2%포인트 오른 3.5%를 기록했다.

문제는 여성과 청년 실업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 실업자는 1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 감소했으나, 여자는 1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20.7%(2000명) 급증했다. 이는 6월 실업자 가운데 2009년 1만5000명 이후 10년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이 때문에 여성 실업률은 4.1%로 껑충 뛰었다.

청년실업은 더 심각했다. 올해 2분기 15~29세 청년실업률은 12.9%를 기록, 전 분기(11.1%)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00년 2분기 12.9%와 같은 수치로, 국가통계포털에 등재된 1999년 3분기 이래 가장 높다.

산업별 취업자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5%), 도소매·숙박·음식점업(5.6%), 농림어업(12.0%)은 증가했고, 전기·운수·통신·금융업(-10.0%), 건설업(-6.0%), 광공업(-3.3%)은 감소했다.

■최근 10년간 2분기 광주·전남 청년실업률 현황



전남지역 취업자는 97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6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63.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포인트 올랐다.

실업자는 3만8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만3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전남 청년실업은 광주보다 한술 더 떴다. 올해 2분기 전남 청년실업률은 14.1%로 전 분기(10.5%)보다 3.6%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국가통계포털에 기록된 1999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 청년 7명 중 1명 꼴로 직장 없이 놀고 있다는 의미다.

6월 여성 실업자는 1만6000명으로 전년동월(1만1000명)보다 5000명 늘면서, 최근 20년간 같은 달 여성 실업자가 가장 많았다.

산업별 취업자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9.3%), 건설업(5.6%)은 증가했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9.8%), 농림어업(-3.2%), 전기·운수·통신·금융업(-2.1%)은 감소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58.78 (+6.75)	↑ 금리 (국고채 3년) 1.44 (+0.01)
↑ 코스닥 666.90 (+9.10)	↑ 환율 (USD) 1181.60 (+1.10)

수영대회 주요 경기장 전력설비 안전 점검

한전 광주전남본부

김동섭 한국전력 사업총괄부사장은 지난 9일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주요경기장을 방문해 전력설비 순시점검과 무결점 전력공급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임철원)는 이번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지난 1월, 경기장 전력공급 설비 정밀점검 및 설비보강을 위한 전력확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남부대학교 수영장 등 5개 경기장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시행해 왔다.

지금까지 주경기장, 선수촌 등을 포함한 주요 공급선로에 대해 배전선로 28개, 전주 1만6000기, 개폐기 1320기 등 전체 설비점검을 완료했고 전주 36기, 특고압전선 10.2㎞, 저압전선 1㎞ 개폐기 및 변압기 15대 등의 전력설비를 보강해 공급능력을 향상했다.

또한 대회기간 중 매일 40여명의 인원이 상황실 및 전 경기장에 긴급고장복구 인력으로 투입될 예정이며, 한전 비상발전차를 남부대학교 주경기장에 상시 대기하는 등 비상상황 대비 신속 정전복구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광주전남본부에 세계수영선수권 전력확보 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해 경기장 전력공급 제반 사항을 총괄 지휘함으로써 무결점 전력공급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동섭 한국전력 사업총괄부사장은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해 매순간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며, 언제나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가치를 창출하는 한국전력의 모습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상의 인적자원개발위 고용부 평가 최우수기관

광주상공회의소가 운영 중인 광주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광주인자위)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0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전국 16개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대상으로 2018년도 성과평가를 한 결과, 광주인자위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인자위는 위원회 운영, 수급조사 분석, 인력양성 사업 성과, 네트워킹, 공공성 증진노력, 조직관리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주인자위는 지난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인력양성 수요조사 1200개사, 취업예정자 양성교육 372명, 재직자 향상교육 1934명 등 성과를 냈다.

또 일학습병행 전문지원기관을 운영해 66개사가 참여했으며,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597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광주인자위는 지난 2013년 산업계, 지자체, 노사민정 대표, 업종별 단체 등 25명의 위원으로 출범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일·학습 병행 사업, 지역혁신 프로젝트 등 3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목표는 취업자 인력양성 300명, 재직자 향상교육 2000명, 일·학습병행 60개사, 지역혁신 프로젝트 2개 사업을 통해 64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테크노파크는 최근 전남도, 여수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전남 스마트 선도산업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 활동에 나섰다. 〈전남테크노파크 제공〉

여수산단, 스마트 선도산단으로 육성

전남도·전남테크노파크 공동 전문가 참여 추진위 출범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전남 스마트 선도산업단지로 육성하기 위한 활동이 본격 추진된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전남도·여수시·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본부와 공동으로 여수국가산단을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로 육성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이용주 국회의원(여수갑·민주평화당), 지역혁신기관 및 스마트 팩토리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남 스마트 선도산단 추진위원회’를 출범, 활동에 들어갔다.

추진위는 올해 하반기 예정된 정부의 스마트산단 공모사업에서 여수산단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중점 분야별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특화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 산업단지공단의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에 따라 전남 스마트 선도산단 추진방향과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수산단은 현재 300여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2만30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전남에서 생산액이 가장 높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혁신산업단지로 선정돼 여수산학융합원과 혁신지원센터가 구축돼 있다.

하지만 조성된 지 50년이 넘어 노후화되면서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용주 의원은 “여수산단은 국가적으로 산업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면서 “전남 스마트 선도산단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스마트산단에 선정되면 정부와 전남도, 여수시 지원으로 산업 인프라와 안전·환경·교통·에너지 등 많은 분야에서 기업의 혁신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경남 창원과 경기 시화·반월 2곳을 스마트 시범산단으로 지정했으며, 6월에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을 열고 오는 2030년까지 총 20개소의 스마트산단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중동시장 개척단 참가 지역 중기 모집

광주 중진공, 22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오는 22일까지 중동시장 개척단에 참가할 지역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장개척단 참가 대상은 지난해 수출실적 2000만달러 이하 광주지역 수출 중소기업이다. 개척단은 오는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터키 이스탄불에서 시장개척 활동을 할 예정이다.

시장개척단에 선정되면 시장성 조사, 현지 바이어 발굴, 수출상담 주선, 통역배치 및 왕복항공료(50~70%) 등을 지원받는다.

또 전문가의 사후관리 지원, 신시장진출 지원자금, 바우처사업(내수기업, 수출초보, 수출유망), 인력지원사업 등 공단의 다양한 연계 지원을 받아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개척단 참가 희망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aypark@kosmes.or.kr, sjh1@kosmes.or.kr)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본부 수출지원센터 062-369-3051.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